

코로나19 시기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김주영¹, 구예성¹, 백춘애², 박정환^{1*}
¹제주대학교, ²중국 칭도대학교

Qualitative Analysi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line Learning Experience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o-yeong Kim¹, Yesung Koo¹, Chunai Bai², Junghwan Park^{1*}
¹Jeju National University, ²Quingda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합리적 질적연구(CQR)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 1학기 및 2학기, 국내 대학에 재학한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모집하여 총 15명에 대해 온라인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4개 영역별로 13개 범주와 3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과 맞춤형 학습을 장점으로, 학습동기 및 집중력 저하를 단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업량과 학업투자 시간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개인적인 학습전략 활용과 함께 친구 및 학교로부터의 도움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 수업공지 및 안내관련 문제와 수업환경 및 기술적 어려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습 개선 필요 사항에서는 교수자의 수업이해 및 향상 참여 유도 필요,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와 수업 환경측면에서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Chinese foreign students in Korea by using the CQR process and method. To gather data, researchers conducted online, in-depth interviews with 15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ho were enrolled in the spring and fall semesters in 2020. After compiling the research, the data were segmented into four domains and 13 categories, with 36 subcategories identified from among foreign students' online learning experiences. The results show that Chinese students perceived the convenience of online classes and personalized learning as its strength, but considered lowered motivation and lack of concentration as weaknesses. Also, they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earning, spending more time studying online, using personal learning strategies, and getting help from friends and the university's online learning system. Moreo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related to class notifications, guidance, and interactions with the instructors.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need their instructor's facilitation in order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online classes, reinforcing a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need appropriate guidance and support in terms of the online class environment.

Keywords : Foreign Student, Online Learning Experience, CQR, Online Learning, Higher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edu114@jeju.ac.kr

Received February 2, 2021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March 4,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국내 대학의 유학생 수는 200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실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0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6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53,695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감소 인원 대부분은 비학위과정 유학생으로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오히려 113,003명(73.5%)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의 3.4%를 차지하는 숫자이다[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부족한 입학 인원을 확보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겪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2],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2019년 기준 5.67%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는 유학생 자신의 비용적 손실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에 소요되는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손실, 더 나아가 한국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전파에 따른 더 큰 잠재적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4].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중단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학생의 언어능력과 대학 평판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한국어능력 성적이 부족하며, 학점이 낮을 경우에도 중도탈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학습 습관이 미흡하고,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시설물이나 학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 수강신청 등의 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내용이나 학습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전국의 모든 대학이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자,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 이전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대부분 일부 교양 과목에 한정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2017년 2학기 기준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비중은 전체 개설강좌의 2.43%에 불과한 수준으로[7], 많은 교수자가 온라인에서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문자 및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수업 진행 등과 관련한 안내를 전달받고 과제나 시험 등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이 능숙한 한국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학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학습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한국인 학생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이 겪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은 하나의 보편적인 수업 방식 중 하나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온라인 학습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학생에게 맞는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학습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습 경험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국내 유학생의 43.6%를 차지하는(67,030명 재학 중)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학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 2020년 1학기 및 2학기, 총 1년간의 학습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셋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온라인 수업의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Hill의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ntitative Research: CQR)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실증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구조주의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참여자들 간의 경험의 공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경험의 독특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8]. 연구팀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살펴보면서, 개인별 특성에 따른 독특한 경향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2.1 팀 구성 및 연구 준비

합의적 질적연구(이하 CQR)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합의’를 중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자료분석을 위해 최소 3명의 팀을 구성하여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자문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2명의 교육공학 박사 과정 연구자와 중국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능숙한 중국어 교육공학 박사 1인을 포함해 분석팀을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육공학 교수인 책임연구자를 자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수행 전 연구팀은 연구 시작 전 약 2달 이상 주제와 관련한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와 연구영역을 설정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면담계획안을 개발했다. 또, 자체 워크숍을 통해 CQR교재를 학습하고,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예비 면담과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연구 과정에서 CQR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2.2 연구참여자 모집

CQR에서는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

를 표집하여 조사하며, 2~15명의 참가자 수를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① 2020년 1학기과 2학기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②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③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조해 줄 수 있는 자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5명으로 이 중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지방소재 국립대 또는 사립대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10명이었다. 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담 시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o	Participants	sex	Age	Grade (2020)	Major	Transfer	Online Learning Experience	Staying Duration in Korea (Year)	Interview Language
1	a	F	20	1	Social Science	N	N	2	KR/CH
2	b	F	29	4	Business	Y	Y	8	KR
3	c	M	23	4	Social Science	Y	N	5	KR/CH
4	d	F	23	4	Living Science	Y	N	4	KR/CH
5	e	F	21	2	Engineering	N	N	4	KR/CH
6	f	M	22	4	Business	Y	Y	4.5	KR
7	g	F	20	2	Engineering	N	N	2	KR
8	h	F	21	4	Engineering	N	N	5	KR
9	i	M	22	4	Business	N	N	4.5	KR/CH
10	j	F	21	2	Arts	N	N	3	CH
11	k	F	23	4	Business	N	N	2	KR/CH
12	l	F	24	2	Business	N	N	3	KR/CH
13	m	F	22	4	Business	Y	Y	2.5	KR
14	n	M	21	2	Business	N	N	4	KR/CH
15	o	M	24	4	Business	Y	N	3	CH

2.3 자료수집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참여자와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은 모두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면담 일정 확정과 사전 정보 확인을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사전 질문지와 연구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성별, 학년, 전공 및 계열, 학년, 휴학 여부, 한국 체류 기간)와 면담 진행 방식(면담 진행 언어, 도구, 참여 가능 일시)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일시와 방식으로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QR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

의할 수 있도록 면담 이전 참여자에게 프로토콜을 제공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팀은 면담이 확정 된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질문지를 미리 송부하여 질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후, 만약 면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의 도구 (Zoom Meeting)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인 연구자 1인과 함께 중국인 연구자 1인이 면담에 참여하여, 연구참여자가 한국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국어를 사용해 응답할 경우 통역을 함께 하면서 면담을 수행했다. 면담은 개인별로 약 70~9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준비단계에서 개발한 반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되 연구참여자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함께 사용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온라인 회의 영상을 녹화한 다음, 이를 전사하여 만들었다. 면담이 한국어와 중국어 2가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한국어 부분을 전사 후 중국어 부분을 전사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했으며, 전사된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해 진행하였다.

2.4 자료분석

2.4.1 사례 내 분석

전사된 자료는 사전에 창안된 영역 목록에 따라 면담 종료 후 면담 자료를 읽으며 자료를 영역화한 후, 사례 내 분석을 통해 핵심개념을 구성하며 코딩했다. 분석팀은 구성된 핵심개념을 반복적으로 교차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최종 핵심개념을 구성하였으며 자문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다.

2.4.2 교차분석

분석팀은 각 영역에 따른 범주를 개발하고, 각각의 핵심개념을 다시 범주에 재배치하고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구성했다. 이후 하위범주별로 연구참여자들의 빈도를 확인하여 주제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본 연구참여자는 15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1명만 제외한 모든 참가자로 구성되었을 때), '전형적'(일반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8명 이상의 참가자로 구성되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참가자 4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드문'(3명 이하일 때)로 나누어 표시했다.

모든 사례에 대한 빈도표시까지 완료된 후 범주별 하

위 표본을 비교하며 검토하고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합의된 내용에 대해 자문 검토를 통해 수정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2.5 연구 윤리 관련 사항

본 연구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사전에 IRB 심사를 통해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후(IRB 승인번호 : JJNU - IRB - 2021 - 005),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참여자 모집 및 면담 수행 등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면담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화상회의 녹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종료 시점에 해당 파일을 파기할 것을 안내했다. 화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에 대한 녹화본 등에 대한 파일 보관 기간 및 방법은 IRB 심사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관리하에 보관 기간 종료 후 파기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제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2020년 1, 2학기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면담 내용에 대한 사례 내 분석 후 교차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2와 같으며, 총 4개 영역에 대해 13개 범주와 36개의 하위 범주가 확인되었다.

Table 2. Cross-analysis results of online learning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n Korea

Domain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Awareness of online classes	Online class satisfaction	Mostly 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Typical(8)
		Dis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Unusual(7)
	Online-face class preference	Wants to switch to face-to-face class	Unusual(6)
		Wants to take optional online course	Typical(9)
	Advantages of online classes	Convenience of online classes	Typical(10)
		Availability of customized learning	Typical(12)
		Smooth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instructors	Unusual(4)
	Disadvantages of online classes	Less nervous when presenting	Unusual(6)
		Lowered motivation and difficulty to concentrate	Typical(12)
		Difficulty interacting with the instructor	Typical(9)
Difficulty interacting with fellow learners		Unusual(5)	

Participation in online learning	Learning management	Increase in academic volume/study investment time	Typical(10)
		Difficulty in learning management	Unusual(5)
	Type of Online Class	Planned learning	Unusual(5)
		Prefer real-time classes	Unusual(4)
Learning strategy	Type of Online Class	Prefer recorded classes	Unusual(7)
		There is no difference or each has its pros and cons	Unusual(4)
	Learning strategy	Use of personal learning strategies	Typical(11)
		Asking/getting help from instructor	Unusual(5)
Online learning difficulties	Class guidance and progress	Help from a friend	Typical(8)
		Help from school	Typical(11)
		Problems related to class progress and guidance	Typical(11)
	Understanding learning contents	Class environment and technical difficulties (Internet, equipment, SW)	Typical(10)
		Difficulty interacting with the instructor	Typical(12)
		Difficulty understanding class content	Typical(11)
	Assignment and evaluation	Difficulty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problems	Typical(9)
		Difficulties due to problems with teaching plan and content delivery	Unusual(6)
		Too many assignments	Typical(8)
	Needs to improve online learning	Interactor's Improvement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performing tasks
Test/Grade Related Problems			Typical(8)
Improvement efforts by students themselves		Enhance class understanding and encourage participation	Typical(8)
		Reinforc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nusual(4)
Improved classroom environment and support		Need to improve Korean language skills	Rare(2)
Improved classroom environment and support	Reinforcement of class guidance and learning support	Unusual(6)	
	Need to improve learning system	Unusual(5)	

2.1 영역 1: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2.1.1 온라인 수업 만족도 및 수업 선호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형적(8)'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족은 '일반적이지 않은(7)'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은 개인별, 상황별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또는 대면 수업 선호 여부와 비교해서 볼 때 의미가 있었다. 선택적 온라인 수업을 원한다는 범주는 '전형적(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수강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참여자 중 7명(a, d, g, h, I, k, l)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학습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교양이나 이론 과목 등에 대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싶다는 참여자도 2명(j, o)도 있었다.

“저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지만은 실습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참여자j)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유학생으로서 한국 학생들, 교수자와의 사회적 관계 및 문화적 교류가 필요함을 언급했는데, 이는 이후 온라인 수업의 장점 또는 단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었다.

2.1.2 온라인 수업의 장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중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은 '전형적(10)'으로 나타났으며, 맞춤학습(반복, 속도 조절) 가능 역시 '전형적(12)'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이동 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절감된다는 점(a, c, d, g, h, i, j)과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c, d, e, g, i),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다(b, c, f, l)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한편,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범주에는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하다(i, k)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제가 중국 사람이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못 알아들으면 멈추고 다시 듣고” (참여자i), “교수님 강의가 너무 빠른 편이라 잘 못 따라갔는데 온라인 강의는 천천히 볼 수 있어요.” (참여자k)

그러나 교수자와 소통 및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는 의견은 '일반적이지 않은(4)'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의식하여 물어보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는 교수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하기가 편하다는 학생(참여자 등)들도 있었지만, 해당 항목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의 단점에서 더 '전형적(9)'인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자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표 시 긴장이 덜 된다는 범주는 '일반적이지 않은(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발표 수업이나 교수자로부터 지목을 받아 답변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라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2.1.3 온라인 수업의 단점

온라인 수업의 단점에는 우선 학습동기가 낮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전형적(12)'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며,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또,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집에서 계속 그냥 쉬고 싶어요. 집이니깐 그냥 핸드폰 계속 보고 싶고.." (참여자c), "컴퓨터 보니까 핸드폰도 보고 싶고 집중도 안 되고 교수님 옆에 있으면은 계속 교수님만 따라가는데..." (참여자m),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카페나 집에서 수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h)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는 의견도 '전형적(9)'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이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질문 등 교수자와 소통 기회가 없거나,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면 수업 시 학습 태도가 소극적인 학생인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도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번 학기 교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참여자d), "실시간 수업은 학생이 질문하는 방식이 별로 없어요." (참여자e)

온라인에서 동료학습자와의 교류가 어렵다는 의견은 '일반적이지 않은(5)'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에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소통하며 수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지금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니깐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어려워요." (참여자d)

2.2 영역 2. 온라인 학습 참여

2.2.1 학습관리

학습관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했는지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분석한 범주이다. 과제와 학업량의 증가는 '전형적(10)'이었으며, 과제나 학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참여자들은 학과 특성상 과제와 발표가 원래 많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경우(d, e, g, j)였다.

"레포트를 하루에 평균 거의 3개 이상 4개 정도 써야 되는데... (중략) 기말고사까지 가면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b)

많은 참여자가 과제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한

반면, 학업량이 증가하면서 수업 내용 이해가 높아진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학생도 있었다.

"과제 원래보다 많아져서 좀 짜증나지만, 과제 그대로 하면 배운다는 느낌 있어요." (참여자i) "혼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수업 마치고 자료를 찾고... (중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참여자o)

학습관리 영역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은 정해진 분량의 학습을 미루거나, 시간 관리나 자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5)'으로 나타났고, 학습계획을 세워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다.

2.2.2 수업참여 유형

수업 참여 유형은 온라인 학습 유형 중 실시간 수업과 녹화형 수업의 선호에 대해 응답한 범주로서 실시간 수업 선호는 '일반적이지 않은(4)' 것으로 나타났고, 녹화형 수업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6)'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시간 수업 선호보다는 조금 많았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거나 각각의 장단점을 실시간 수업을 선호한 학생들은 '녹화형 수업은 교수자와 교류할 기회가 없다'고 언급했지만, 실시간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a, i, j, l)은 인터넷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강의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녹화형과 달리 반복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화형 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차이가 없거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2명(c, g)의 경우 실시간 수업 영상을 녹화하거나, 교수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응답했다.

2.2.3 학습전략

학습전략은 학습자들이 온라인 수업의 내용 이해나 수업 진행 또는 과제 수행 등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와 관련한 범주로서, 어려운 부분을 반복하거나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자료 검색을 통해 찾아보거나 PPT 강의자료를 활용한다는 등의 개인적 학습전략 활용하는 경우가 '전형적(11)'으로 나타났다.

학교로부터의 도움(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조교에게 문의)도 '전형적(11)'으로 나타났는데, 유학생들은 학교의 선배 또는 또래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업이나 학교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수자에게 도움을 받기는 '일반적이지 않은(5)'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을 통해 교수자로부터 과제의 피드백을 받거나 채팅 등을 통해 즉시 응답을 얻을 수 있

는 점이 좋았다고 응답했다(b, c, g, l). 특히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 학생들에 비해 모르는 것이 많은데, 대면 수업에서 질문하기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면 수업에서 혼자 질문을 많이 하면 좀 어색해져요. 근데 비대면 수업이면은 그런 거 없어요.(중략) 만약에 제가 진짜 교수님 의미 모르면 다시 몇 번 듣고 아니면 또 모르면 그냥 이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그 메시지로 보내거나 하면 의사소통은 잘 돼요.” (참여자i)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학생은 동일한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교수자에게 질문하기 어색하거나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 유학생 간에도 개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3 영역 3. 온라인 학습 어려움

2.3.1 수업 안내 및 진행

수업 안내 및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 중 수업 공지 및 안내 관련 문제는 ‘전형적(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문자로 전달되는 수업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 주로 언어적 문제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공지 및 안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해 본인이나 친구가 출석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교수님이 과제물 내주시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교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여자d), “주변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적을 F 맞은 학생들이 주변에 있어요. (참여자z)”

수업 환경 및 기술적 어려움(인터넷,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역시 ‘전형적(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환경(접속 끊김) 등의 문제나 학습 시스템 불편 사항 외에도 시스템 설정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언급한 경우도 많았다.

“중국 사람들 주로 워드 쓰는데 (참여자f), “제일 불편한 게 한글(프로그램) 써요... (중략) 한글 소프트웨어 구하기도 어렵고...” (참여자i) “노트북 키보드가 중국 거라 (키 배열이) 달라서 한국어 타이핑이 오래 걸려요.” (참여자n)

또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역시 ‘전형적(1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면수업과 달리 교수자에게 질문이 어색하고 하다고 응답하거나, 교수자에게 질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너무 오래 걸려서 어렵다는 경

우도 있었다.

“(실시간 수업에서) 만약 중간 부분에 채팅 올리면 교수님 강의하고 계시는데 내가 갑자기 질문하면 예의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참여자e), “온라인(실시간) 수업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같이 50명 정도 듣고 있으니까” (참여자c)

2.3.2 수업내용 이해

수업 내용 이해에 대해서 수업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이 ‘전형적(1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전형적(9)’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100% 들을 수 없어요.” (참여자g),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서 놓치고 하니까...(참여자j)”

내용 이해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강의하거나(d) 강의 교안이 부실하거나(b, d, j, k), 교수님의 사투리나 너무 빠른 설명 속도(k, l, n) 등을 언급했으며, 내용전달 방식에 의한 어려움은 ‘일반적이지 않음(6)’으로 나타났다.

2.3.3 과제 및 평가

과제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과제수행의 어려움이 ‘전형적(11)’으로 나타났고, 시험 및 성적 관련 문제 역시 ‘전형적(8)’으로 나타났다. 과제 수행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과제의 양이 너무 많거나(a, b, c, f, h, I, j, k) 과제에 대한 이해와 실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b, d, h, l, o)로 나타났다.

“교수님이 과제물 내주시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말씀 해주시지만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교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여자d), “교수님이 진도도 빠르기도 하고 또 내어 주신 과제물도 난이도가 있어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어요.” (참여자o)

시험/성적과 관련해서는 과제나 시험의 질이 낮거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b, d, f), 교수님에 따라 유학생과 한국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차이가 있다(a, f, m)는 학생들도 있었다.

2.4 영역 4. 온라인 학습 개선 필요사항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의 개선 및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하여 교수자 개선사항의 측면과 학생 스스로 개선 노력, 수업환경 및 지원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2.4.1 교수자 개선 사항

온라인 학습과 관련한 교수자 개선사항으로는 수업이 해 향상 및 참여 유도가 '전형적(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는 학습자들이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교수자의 관심과 친밀감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c, d)과 함께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와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b, c, h, o)이 있었으며, 개별적인 피드백(g)과 교수자와의 실시간 소통 채널 제공(i)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한 학습내용 이해 향상을 위하여 PPT 강의교안을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의견(d, j, k, o)도 있었다.

“교수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더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o)

2.4.2 학습자 스스로 개선 노력

온라인 학습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필요가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 향상 필요가 '드문(2)'으로 나타났다.

“수업 끝나고 (과제를) 바로 안 내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바로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f), “(새학기 수업을 위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시간별로 계획을 세웠어요.”(참여자n)

2.4.3 수업 환경 및 지원 개선

이 범주에서는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 강화가 '일반적이지 않은(6)'으로 나타났고, 학습시스템 개선 필요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4)'으로 나타났다.

수업 안내 및 학습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업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i, j)과 학습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를 연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b, c, l)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바란다는 의견(h)이 있었다.

학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은 온라인 수업 진행 시 너무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의가 어느 사이트에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혼란이 있다는 점 등(d, e, f)과 학습 진도 관리나 콘텐츠 재생 환경 문제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b, i)이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CQR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과 맞춤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강의실 수업과 달리 혼자 공부하는 느낌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떨어지고,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점으로 인식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같은 시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안한나 외(202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9].

학습동기 및 집중력 저하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동일 시기,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정희원과 윤지원(2020)[10]의 연구와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2020)[11] 등의 연구 모두에서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한나 외(2021)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한나 외(2021)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전용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한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수업에 소수자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와 함께 교수자 역량, 교수법 차이로 인해 만족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온라인 수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면 수업에 비해 학업량이나 학업투자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이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면 수업에서 교수자의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강의를 멈춰 놓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번역기나 검색엔진을 이용해 같은 주제의 중국어 학습자료를 통해 보충학습을 하는 등 다양한 개인적 학습전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로부터 질문이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면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도 한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수업에서 '혼자만 모르는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을 갖거나(참여자z)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참여자i) 질문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

대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 편하게 교수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질문이 어색하다(참여자b, c, e, f, l)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없어 교수에게 질문하기가 두렵다(참여자j)는 학생들도 있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간의 개인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수업 안내 및 진행과 관련한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업 안내 및 공지 문제는 출석이나 평가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는 등의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좀 더 개인화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업 내용 이해와 관련한 부분은 온라인 학습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한국어 듣기나 쓰기 능력이 능력 부족에 기인한 바가 더 컸는데,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개별적 학습 도움을 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더욱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수업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제공 등 교수자 측면의 개선과 함께 수업 안내 방식 개선이나 한국인 학생을 통한 도움 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지원 역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경험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전공 및 계열, 한국 체류 기간, 기존 온라인 학습 경험 여부 등에 따라 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이나 어려움 등과 같은 측면에서 수업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수업과 녹화형 수업을 비교하는 것 외에 전공 또는 교양, 이론 또는 실습 등과 같은 과목 유형 특성이나 교수자의 교수법 등에 따른 유학생들의 만족도나 어려움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는데, 교과목과 교수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방법이나 수업 지원 방법 등의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20 Educational Statistics.
- [2] D. H. Lee, "Instructional design fo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through FGI : Focused on H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32, No. 1, pp.215-231, 2018.
DOI: <http://doi.org/10.21298/IJTHR.2018.01.32.1.215>
- [3] Academy Information , Status of Foreign University Student's Fallout in 2020. Retrieved from: <https://www.academyinfo.go.kr/>
- [4] D.W. Woo, G.H. Chen, K.O.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Analysis of Chinese Foreig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Fallou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27, No.3, 2020, pp.37-54.
DOI: <http://dx.doi.org/10.21219/JITAM.2020.27.3.037>
- [5] I.C. Shin, J.E.Han, H.M.Park, "A Study of the Dropou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s Factor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vol.11, no.2,2018, pp. 105-133.
DOI: <http://dx.doi.org/10.14431/jms.2018.08.11.2.105>
- [6] E.H. Lee, Y.G. Cho, N.H Kim, "A Study on the Analysis for Learning Difficulties of Foreign Students in University of South Korea - Focusing on Chinese Foreign Students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6, no. 6,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Dec. 2014, pp. 1261-1277.
DOI: <http://dx.doi.org/10.13000/JFMSE.2014.26.6.1261>
- [7] S.S. Yang, C.W. Park, D.Y. Kim, & G. L.Gwak, A Study on the Peripatetic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ity Curriculum: Focusing on the Spatiotemporal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OR2017-07).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924>
- [8] C.E.Hil, Consensual Quality Research(E.S. Joo, Trans.), 2019, p. 45.
- [9] H.N.Ahn, J.Y.Kim, H.Kim, S.J. Le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 university on-line classes - Based on P university case study", *KALCI*, vol.21,2021, no.3, pp. 1-23.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1.21.3.1>
- [10] H.Y. Jung, J.W. Yoon, A Survey Research of Student's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Online Video Lectur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3, 2020, pp. 1305-1318.
- [11] Y.H. Kim, Virtual 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 vol.21, no.12, pp. 278-29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2.278>

김 주 영(Jooyeong Kim)

[정회원]



- 2008년 ~ 현재 : ㈜스토리이십일 교육콘텐츠 개발 (실장)
- 2019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이터닝학과 (이학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교수설계, 디지털 교수역량, 에듀테크

박 정 환(Jung-hwan Park)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

구 예 성(Yesung Koo)

[정회원]



- 201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교육학석사)
- 202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21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대외협력과 연구원 재직 중

<관심분야>

교수역량, 교수설계, 학습자 역량

백 춘 애(Chunai Bai)

[정회원]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중국 청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교수설계, 교수법